



# 뉴스레터

2016년 6월 30일자

저자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

## 6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회의 개최

제6차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 네트워크 회의가 지난 2016년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한 제4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총회 기간 중 3월 15일 오후에 진행된 주제별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섬·연안 지역”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회의는 유네스코/MAB 주최, 제주-스페인 BR 및 네트워크 사무국 주관하에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사무국이 세계 섬연안 BR네트워크 주요활동내용을 발표하고, 메노르카 사무국이 지속가능발전 목표 관망을 발표하면서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 대응전략 공동연구사업을 정대연 센터장님이 발표하였으며, 대표 BR지역 관계자들이 지역·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BR의 기여 및 지속가능발전 및 생태계 모니터링의 중요성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에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MAB국제조정이사회에서 최종확정 결의될 예정인 2016-2025 리마행동계획에 대한 제안사항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토론은 리마행동계획 초안에 제시된 각 조항에 대해 WNICBR 네트워크와 관련된 조항내용의 첨가나 수정을 제안함으로써 보다 개념적이고 실현가능한 프레임워크를 정립하고자 진행되었다.

토론 이후에 진행된 사무국 운영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1. 회원지역 증가 및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에 따라 차기 회의 때까지 체계적인 관리운영 지침 정립
2. 제7차 네트워크 회의는 2017년 6월경 제주도에서 개최
3. 반기별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뉴스레터 발간
4.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사례집 발간
5. 브랜드 가치 활용 등 각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정보 공유

이어서, 3월 16일에 진행된 거버넌스 세션 부대행사에서는 정대연 아시아기후변화센터장이 “기후변화 정책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전략 및 정책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네트워크 회의는 지난 5차 회의와는 다르게 제4차 세계총회 회의 내 주제별 세션 형식으로 진행되어 회의 진행시간이 비교적 짧아 보다 다양한 내용의 발표와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하지만, 세계총회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던 만큼 이전 회의때보다 많은 참석자들이 회의를 참관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성공사례 및 활동사례 발표를 통한 단순한 정보공유가 아닌 리마행동계획의 제안사항을 토론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실현가능한 의견들을 공유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사업 2단계 연구 중간보고서 발간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제주사무국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 중인 생물권보전지역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공동연구사업이 현재 2단계 사업 1차년도를 마치고 중간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단계 연구사업은 1단계 연구에서 실시한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영향사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5곳의 대표 연구구역 (제주 BR (동중국해), 마카비/벨음브 BR (인도양), 메노르카 BR (지중해), 세인트마리 BR(카리브해), 프린시페섬 BR (대서양))의 공통취약점에 대해 대응전략 수립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연구사업은 1단계 연구에서 실시한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기후변화 영향사례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5곳의 대표 연구구역 (제주 BR (동중국해), 마카비/벨음브 BR (인도양), 메노르카 BR (지중해), 세인트마리 BR(카리브해), 프린시페섬 BR (대서양))의 공통취약점에 대해 대응전략 수립을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단계 사업 1차년도 연구는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연구의 목표
- 기후변화 대응전략 수립 연구내용 및 방법
- 현존하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책 분석
- 보호지역에서의 보호전략 분석

이에 대한 중간보고

발표는 지난 3월 14-17일 기간 동안 페루 리마에서 개최한 제4차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총회에서 세션발표로 이루어졌는데, 이번 공동연구사업에 대한 목적 및 연구 진행의 결과보고를 발표하였다. 발표는 정대연 책임연구원이 하고, 각 연구지역별 해당 연구원들이 부가 설명하였다.



중간보고서는 6월에 책자로 출판되었으며, 전자문서는

<http://wnicbr.jeju.go.kr/index.php/contents/pds/pds>

에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다.

## 제4차 세계 섬·연안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 실시 예정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교육(이하 ‘관리자교육’이라 칭함)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이하 ‘BR지역’이라 칭함)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사업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다가오는 9월 말경에 제주도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인 이번 관리자 교육은 신규등록지역 및 개발도상국 BR지역 관리자들에게 BR지역의 개념과 지향점을 이해시키고 기후변화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함이다.

교육 참가자들은 교육기간 동안 섬·연안 BR지역의 기후변화 영향 및 지속가능한 발전, BR지역 관리정책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참가자들이 관리하는 BR지역의 사례발표 소개, 제주도 BR지역 현장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참가자 모집은 8월초 경에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이루어지며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우선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 < 우선 선발 기준 >

- 2014년 이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 ODA(공적개발원조) 수원국

- 그동안 WNICBR의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
- 국가 대륙별 분배, 동일 조건인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교육 참가자는 한 BR지역 당 1명이며, 항공료를 비롯하여 교육기간 동안 필요한 체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같은 BR지역에 추가로 교육 참가를 원할 경우, 항공료 부담 등 조건부 참가가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 공고는 오는 8월 초 경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nicbr.jeu.go.kr/index.php/contents/community/notice>

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간 정보공유의 기회도 갖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3차 관리자교육 강의 사진, 2015년 10월)

## 리마 행동계획 시행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국제워크숍 - 2016. 6. 2-4,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지난 2016년 3월에 개최한 제4차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총회에서 생물권보전지역의 향후 10년을 위한 로드맵인 리마행동계획(2016-2025)이 결

의됨에 따라, 생물권보전지역의 자연자원 관리와 정책수행에 있어서 각국 지방정부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에 생물권보전지역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유네스코 자카르타 사무소, MAB 인니위원회, Wakatobi 정부의 주최하에, 2016년 6월 2-4일에 인도네시아 와카토비 BR지역에서 “리마행동계획 시행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국제워크숍”(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Implementing the Lima Action Plan for Biosphere Reserves)을 개최하였다.

워크숍에서는 생물권보전지역 공동체의 녹색경제개발, 기후변화 완화 활동, 녹색사회와 회복력을 갖춘 사회 구축, 생물권보전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복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역량강화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을 비롯하여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탐사르 습지가 중복 지정되어 있어, 이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주도 국제보호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체계적으로 구축된 관리시스템을 소개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국제보호지역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지역 관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정대연 센터장이 이번 워크숍에서 “국제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제주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아울러, 워크숍에 참석한 베트남 캣바 BR지역과 유네스코 태국 위원회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다가오는 11월경에 태국에서 개최할 예정인 국제워크숍에서 “BR지역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 측정방법”(Methodology for Estimating Economic Value of BR as an Environmental Resource)에 관한 발표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 세계자연유산 서포터즈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



제주도는 유네스코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34명의 서포터즈를 선정하여 2016년 3월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들 서포터즈들은 블로그 및 SNS를

통해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브랜드 홍보 활동을 한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서포터즈 중에는 미국, 페루, 리투아니아, 남아공, 대만 등 외국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전 세계로 제주 브랜드를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는 현재 하례리와 저지리 지역에서 생태관광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 생태관광마을에 서포터즈를 초청하여 2016년 4월 15-17일까지 2박3일에 걸쳐 생태관광체험을 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체험의 목표는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지역 생산물로 만들어진 식사를 하며,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농장체험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데 있다.

하례리 마을에서는 감귤버거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마을에서 직접 만든 재료로 햄버거를 만들고 그 안에 감귤을 넣어 만드는 체험인데, 직접 만든 이 햄버거는 마을 주변 하천체험 때 간식으로 먹었다. 이후 암벽타기 전문가와 동행하여 걸서악하천과 남내소, 망장포를 트래킹하는 기회를 가졌다. 걸서악하천 트래킹은 인공적으

로 만든 트래킹 코스 하나없이 자연 그대로의 암벽들을 타는 것이 쉽진 않았지만, 이를 극복하고 마주하는 경치는 매우 좋았다.

저지리 마을에서는 딸기 수제비, 빕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마을에서 직접 재배하는 딸기를 따는 체험도 하였다. 이어 저지리 마을의 핵심지역이라 할 수 있는 저지 곳자왓을 탐방하면서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진면목을 경험하는 자리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저지리 마을에서 마을사람들의 단합과 교류의 목적으로 진행된 저지 곳자왓 축제에 참가하여, 마을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 즐기고 생태관광마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체험을 통해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의 브랜드를 세계 각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생태관광마을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생물권보전지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



지난 2016년 6월 14~15일까지 제주도 생태관광마을인 하례리에서 MAB 한국위원회, 한국환경교육연구소, 하례리 생태관광 협의체 주관하에 생물권보전

지역 기반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워크숍의 취지는 국내 5개 생물권보전지역 관계자와 교육실행자들이 모여,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제주도 생태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주민과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다.

참석자는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관계자 10여명과 MAB 한국위원회 위원 및 관계자, 한국환경교육연구소 연구원, 건국대학교 환경사회학 연구실 연구원 등이다.

이들은 첫날 제주BR 핵심지역인 효돈천 트레킹을 통해 제주BR의 보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태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하였다. 이어, 저녁식사 후 이루어진 워크숍에서는 생태관광마을 하례리 사례 및 기타 성공사례 발표자료

를 보면서 하례리 생태관광마을의 개선점 및 국내 타 BR지역에의 성공적인 접목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 아울러, 현재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학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하례리 고살리길 생태탐방을 하면서 제주도 BR 지역에 서식하는 고유 식물들을 관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위한 국내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향후 국내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번 워크숍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관리자들과의 네트워크 교류의 차원을 넘어 지역주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생태관광마을 및 학교교육 등의 활동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현지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개선점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제주도 생태관광마을과 학교교육의 추진방향이 올바른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타 BR지역들은 제주도BR의 생태관광마을과 학교교육을 좋은 성공사례로 참고하여 해당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제주도BR 생태관광마을, 하례리 대한민국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특화과제로 선정!



제주도 생물권보전 지역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저지

리와 하례리 2개 마을이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로 선정되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청정성을 바탕으로 생태관광마을을 명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보이고 있다.

그 활동 중에 홍보 측면에서, 이번에 하례리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이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특화과제 공모에서 “하례리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여행 프로그램”이라는 과제명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국민디자인단은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정부3.0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공무원의 일방적인 정책설계 방식으로는 지역주민이 실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 주민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주민참여형 정책서비스이다.

이번에 하례리 생태관광마을이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특화과제 중의 하나로 선정됨으로서 제주를 대표하는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 브랜드화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정기관의 주도가 아닌 민·관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마을과 지역발전이 실현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이 든다.

이번 공모사업은 올해 5월 전국 256개 지자체를 대

상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하례리 생태관광마을 프로그램’을 포함한 13개 지자체의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 13개 과제 중에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과제로 선정될 경우 정부 포상 및 내년 예산 지원 등의 혜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3.0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핵심과제이므로 향후 제주도 하례리 생물권보전지역 생태관광마을을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